

백용성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과 화과원

- 대각교 농장과 화과원의 꿈과 맘을 찾아서 -

한동민 - 수원화성박물관장

• 목 차 •

- I. 해방정국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과 대각사 방문
 - II. 안수길의 소설 「원각촌」을 통해 본 대각교 농장
 - 1. 안수길과 대각교
 - 2. 「원각촌」을 통해 본 대각교 농장
 - III. 함양 화과원의 의미를 찾아서
-

I. 해방정국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과 대각사 방문

1945년 12월 12일 백범 김구(金九, 1876~1949) 선생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요인은 대각사를 방문하였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속에는 김구, 황학수, 이시영, 김창숙 선생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사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기념 1945. 12. 12’라고 적혀 있어 대각사 방문 일자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 30여 명이 대각사를 방문하여 용성스님께서 독립자금을 지원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당시 대각사에 주석했던 스님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2월 『불교신문』은 ‘해방 직후 대각사 방문 백범 김구 사진 발굴’이라는 기사와 함께 또 다른 사진 1장을 공개하였다. 사진 하단에 기존에 알려진 사진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기념 1945. 12. 12’라고 적혀 있어 같은 날 대각사 방문 기념으로 찍은 또 다른 사진임을 알 수 있다. 해방 전 입적한 용성스님을 대신해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을 맞이한 것은 동암스님과 회암스님 등 제자들이었다. 사진 속의 인물 가운데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조소앙, 이시영, 김구, 회암스님, 동암스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중국에서 귀국한 지 20일 안되는 상황에서 김구 일행의 방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한 용성스님과 대각사의 독립운동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각사 방문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이 이 글의 1차적 관심이다. 우선 해방 이후 중국에 있었던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과 당시 해방정국의 급박한 상황에서 대각사 방문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과정과 국내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은 김구의 수행원으로서 임정 1진으로 귀국한 장준하(張俊河, 1918~1975)라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장준하의 자서전 『돌베개』의 「임시정부의 환국」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백범 김구가 1945년 11월 23일 상해 장완비행장에서 미군 C-47 중형 수송기로 김포 비행장에 4시간 만에 도착한 것은 나라를 떠난 지 27년만의 일이다.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 국무위원, 김상덕 문화부장, 유동열 참모총장, 엄항섭 선전부장 등의 정부 요인들과 김규식 박사 아들이며 비서 일을 보던 김진동, 주석의 시종의무관 유진동, 수행원으로 장준하, 이영길, 백정갑, 윤경빈, 선우진, 민영완, 안미생 등 15명이었다. 임시정부의 제1진 15명과 함께였지만 백범은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돌아온 것이다. 해방의 기쁨과는 달리 미군정 실시라는 서글픈 정치적 현실이 빚어낸 장면이다.

중국국민당 장제스와 주중 웨드마이어 미군 사령관의 주선으로 미군정청 하지 중장이 수송기를 보내온 것이지만 임정의 환국은 해방되고 나서 3달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뒤의 마지못해 한듯한 주선이었다. 더욱이 임시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자격이자 비공식적 환국이 되었다. 김포비행장에 도착한 이들을 맞이한 것은 장갑차 6대와 무표정한 미군 GI들이 전부였다. 환영인파와 환영인사도 없이 군용차도 아닌 밀폐된 탱크처럼 된 미군 장갑차에 분승하여 오후 5시 조금 넘어 서대문 경교장에 도착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김포 비행장을 빠져 나와 서대문까지 이동시킨 미군의 작전일 뿐이었다. 임시정부 환국을 위해 국내에는 이미 ‘임시정부 환국 환영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고, 준비위원회는 광산왕 최창학의 개인 저택(죽점정, 이후 경교장으로 이름 바꿈)과 충무로 한미호텔 두 곳을 임시 거처로 마련해놓고 있었다.

미군정청 공보과를 통해 그날 저녁 정각 6시 조선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 하지 중장의 간단한 성명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오늘 오후 김구 선생 일행 15명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오랫동안 망명하였던 애국자 김구 선생은 개인의 자격으로 서울에 돌아온 것이다.” 하지가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그렇게 임시정부는 정부도 정당도 아닌 개인자격으로 폄하되었다. 미군정이 장악한 해방공간의 엄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한국인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았다. 백범 김구는 저녁 8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완전 통일된 독립자주의 민주국가 완수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엄항섭 선전부장은 임시정부 14개 당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미 1945년 9월 3일 작성된 14개 조항이었다. 백범 김구는 환국 3일 뒤인 11월 26일 10시 군정청 제1회의실

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적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다음날인 27일 거물급 정치인 4인- 한국민주당 송진우 당수, 한국국민당 안재홍 당수, 인민당 여운형 당수, 조선인민공화국 허헌 국무총리 등과 각각 개별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11월 28일 백범 김구는 환국 이후 처음으로 의암 손병희와 도산 안창호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날 익선동의 위창 오세창(吳世昌)의 집을 개인 사저로는 처음 방문하여 권동진(權東鎭)을 만났다. 손병희 묘소를 참배하기 위한 것으로 4대의 세단에 백범과 오세창, 권동진 및 김규식, 이시영, 유동열, 엄항섭 그리고 안미생과 장준하 등 수행원이 나눠 타고 우이동 의암 손병희 선생 묘소를 참배하였다. 그리고 다시 망우리 도산 안창호 묘소를 참배하였다.¹⁾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천도교측을 대표하는 의암 손병희와 권동진 및 오세창,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을 역임한 도산 안창호 묘소의 참배는 나름 의도된 행보였다. 이렇듯 백범 김구에게 참배와 방문의 대상은 신중하고 의미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선택되었다.

12월 1일 ‘임시정부 환국 봉영회(奉迎會)’가 서울운동장에서 3만 명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²⁾ 임시정부를 환영하는 공식적인 첫 행사였다. 서울운동장에서 종로를 거쳐 안국동으로 꺾어져 중앙청 앞으로 해서 태평로로 빠져 서울역까지 태극기 행렬이 이어졌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안국동에 이르렀을 때는 눈송이가 커져 평평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행렬은 이어졌고 그 의미 또한 해방된 조국에 비로소 왔다는 자긍심과 안도감을 주는 것이었다.

임시정부 及연합군환영회본부 주최의 臨時政府奉迎會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가 단체는 경성대학을 필두로 전문, 중학, 소학 등 100여교와 기타 500여 단체에 달하였는데, 식은 尹潐善의 사회로 개막하여 먼저 吳世昌으로부터 갈망하던 임시정부 간부가 환도하였으니 이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자는 개회사가 있고 李仁의 봉영문 낭독이 있는 후 權東鎭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고 조선 국군학교 생도를 선두로 기행렬

1) 장준하, 「임시정부의 환국」, 『돌베개』 돌베개, 2015, pp.398~400.

2) 「臨時政府奉迎盛式 昨日 訓練院에서 壯行」, 『동아일보』 1945. 12. 2.

에 옮기어 행렬은 안국정 네거리에 이르러 조선생명보험회사 2층에서 축하를 받는 金九, 李承晩 앞에서 대한임시정부 만세와 金九 만세, 李承晩 만세를 부르고 경성역 앞에 이르러 해산하였다.³⁾

한편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맞이하여 이를 맞이하는 준비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준비되다가 최종적으로 김석항(金錫瓚)을 위원장으로 국내 각계각층을 망라한 조직으로 결집되었다. 즉 1945년 11월 16일 ‘임시정부 영수 환국 전국 환영회’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것이다.⁴⁾ 당시 작성된 ‘임시정부 영수 환국 전국환영회(위원장 金錫瓚)’ 명부에 따르면 영접부(迎接部, 66명), 경호부(警護部, 71명), 교섭부(交涉部, 16명), 서무부(庶務部, 127명), 보도부(報道部, 각 신문사와 통신사, 11명), 재정부(財政部, 43명 외 금융단 70명), 연락부(連絡部, 72명), 정보부(情報部, 46명) 등의 500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불교계 인사로는 영접부의 김법린(金法麟), 서무부의 김적음(金寂音)·이종욱(李鍾郁)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한편 임시정부 요인 2진이 서울에 입성한 것은 12월 2일 저녁이었다. 원래 12월 1일 오후 1시 즈음 김포공항에 도착예정이었는데 쏟아지는 눈으로 남쪽으로 기수를 돌려 오후 3시 군산 옥구비행장에 착륙하였다. 미군 대형트럭으로 이동하여 밤 10시 논산의 여관에서 1박하고 다음날 2일 오후 4시 유성비행장에서 서울에서 보낸 수송기에 탑승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이 저녁 5시, 경교장에 도착한 것이 5시 50분이었다. 이렇게 임정 2진 역시 환영인사도 없이 서울에 도착한 것이다. 의정원 의장 흥진, 국무위원 조성환, 황학수, 장건상, 김봉준, 성주식, 유림, 김성숙, 조경한, 국무위원겸 재무부장 조완구, 국무위원겸 외무부장 조소양, 국무위원겸 군무부장 김원봉, 법무부장 최동오, 내무부장 신익희 등 요인 14명과 안우생, 이계현, 노능서, 서상렬, 유재현 등 수행원 5명 등 모두 19명이었다. 당시 신문에는 김준엽이 포함되어 2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준엽은

3) ‘환영기 행렬도 성대, 金九 주석에 逢迎文을 進呈, 환영회 주최의 임시정부 봉영회’, 『자유신문』 1945. 12. 2.

4) ‘임정요인환영에 국내의견 통일’, 『자유신문』 1945. 11. 18.

빠진 19명이었다.

김구 주석과 인연이 깊은 인천에서는 임시정부 봉영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였다. 서울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12월 1일의 봉영행사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인천의 임시정부 봉영회는 12월 4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임정 2진이 12월 3일 도착하면서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날이 12월 6일이었던 관계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인천에서는 임정의 김상덕(金尙德, 1892~1956) 문화부장만이 참석하여 봉영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⁵⁾ 임시정부 2진이 환국하면서 12월 6일 오후 3시 국내에서 열리는 임정의 첫 국무회의가 경교장에서 개최되었다. 구미위원회 단장으로 이승만도 참여하였다.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날의 역사적 국무회의는 내용적으로는 별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임정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은 지속되었다. 이날 저녁 전국청년단체총동맹 서울시연맹(위원장 金駟玉) 주최로 임시정부 영수를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오후 8시부터 명월관에서 각 단체대표 약 250명이 참석하여 ‘金九先生歡迎會’를 개최하였는데, 당일 金九선생은 중대한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으나 신익희(申翼熙), 조소앙(趙素昂), 김약산(金若山-김원봉), 장건상(張建相), 류림(柳林) 등 5명이 참석하였다.⁶⁾

김구 주석 자신도 “내가 왔으니 정부도 왔소.”라고 하였고, 선전부장 엄항섭은 ‘대외적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자격이겠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자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정 요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임시정부를 특별히 생각하여 이들이 환국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환영회’ 등의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절정이 12월 19일 11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였다. 서울운동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⁷⁾

지금까지 백범 김구가 찾은 곳은 독립운동 인사들의 묘소 참배와 대중적 성격의 환영

5) ‘金九主席奉迎會 金部長臨場, 仁川서 舉行’, 『동아일보』 1945. 12. 4.

6) ‘전국청년단체총동맹 서울시연맹, ‘김구선생 환영회’를 개최’, 『자유신문』 1945. 12. 8.

7) 『동아일보』 1945. 12. 20 ; 『서울신문』 1945. 12. 22.

식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2월 12일 임정 요인들의 대각사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각사가 갖는 독립운동상 역사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백범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의 방문 의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각사를 비롯한 불교계의 임시정부 봉영의 뜻도 강렬했다 할 수 있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의 처지에서 보면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용성스님이 주석했던 대각사의 방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임시정부 봉영회 및 환영회는 대형 음식점인 명월관이거나 대중적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동대문운동장 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구 일행이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참배한 인물은 의암 손병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다.

백범 김구가 전국을 순회하는 것은 1946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1차로 인천으로 젊은 날 수형생활을 했던 인천감옥과 축항공사장 등을 시작으로 2차로 승려가 되었던 공주 마곡사, 3차 예산의 윤봉길 의사 본가를 방문하였다. 자신과 관련한 역사적 상징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 행위이기도 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제주도, 부산,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등 의미있는 지역의 답사와 참배를 거쳐 삼남지방과 서부지방으로 확대 순회하고 있다.⁸⁾

따라서 1945년 12월 12일 용성스님의 주석처였던 대각사의 방문은 백범 김구에게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미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각사와 용성스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뜻한다고 하겠다.

II. 안수길의 소설 「원각촌」을 통해 본 대각교 농장

1. 안수길과 대각교

8)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1(12쇄), pp.410~421.

안수길의 단편소설 「원각촌(圓覺村)」은 특별히 용성과 대각교 차원에서 주목해 봐야하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에 대한 연구와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다만 문학 분야에서 만주라는 공간과 조선 이주민의 측면에서 주목되었다.⁹⁾ 「원각촌(圓覺村)」은 『인문평론』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 탈고한 작품이지만 잡지가 폐간되는 바람에 『국민문학』(1942)에 게재되었다. 작품 말미에 ‘강덕 팔년 십이월(康德八年十二月)’이라고 하여 탈고 시기가 1941년 12월임을 밝히고 있다. 「원각촌」은 다시 1944년 간도 예문당에서 간행된 안수길의 초기 단편집 『북원(北原)』에도 수록되었다.¹⁰⁾ 안수길이 일제강점기 간도에 활동하며 발표한 대표적 작품이다. 「원각촌」은 안수길의 경험이 묻어나는 사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학적 측면보다 역사적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용성스님과 대각교 그리고 만주에 열었던 대각교당 및 이상촌 건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소설이지만 용정의 대각교당과 대각교 농장에 대한 당대인의 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셈이다.

안수길(安壽吉, 1911~1977)이 대각교와 용성스님과 밀접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안수길은 1911년 11월 3일 함남 함흥 태생으로 함흥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1924년 아버지가 있는 만주 용정으로 1926년 간도 중앙학교를 졸업하였다. 조선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용정의 간도중앙학교는 일본총영사관이 운영하는 학교로 일제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였다. 1925년 당시 조선총독부는 재외 조선인의 시설비 항목 가운데 간도 중앙학교 경비보조금 2000원을 증액하고 있다.¹¹⁾ 그럼에도 1919년 3월 18일 200여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주도하였고, 1930년 용정에서 만세시위를 거행하면서

9) 김호웅, 「재만 조선인 문학의 기수- 안수길과 그의 소설세계」, 『한국문화 속의 외국문화, 외국문화 속의 한국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방룡남, 『재중 조선인 이주민소설 연구 -안수길론』, 한국문화사, 2011; 이해영, 「일제시기 간도間島 이주와 그 형상화의 두 양상- 안수길의 <북간도>와 리근전의 <고난의 년대>」, 『한국학연구』 제2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장미경, 김순전, 『國民文學』에 실린 間道開拓 소설 고찰 - <土龍>과 <圓覺村>에 표상된 人物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41호, 2009; 장춘매, 「안수길 소설에 나타난 재만조선인의 현실 - <원각촌>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5, 2017.

10)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1917-1950)』,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11) 「今年總督府豫算 一億七千三百三十九萬餘圓」, 『동아일보』 1925. 1. 5.

30여 명이 퇴학을 당할 정도로 간도 중앙학교 학생들의 민족주의 기백과 전통이 용솨음 치던 학교였다. 1922년 당시 용정촌의 학교로는 중앙학교를 비롯하여 사립 대성학교, 사립 명신여학교, 은진중학교, 사립 영신중학교, 사립 동흥중학교 등이 있었다.¹²⁾

안수길은 다시 귀국하여 고향의 함흥고보에 입학하였는데, 1927년 함흥고보 2학년 재학 중 맹휴사건 주동으로 자퇴하고, 이듬해 1928년 서울의 경신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경신학교에서도 3학년 때 동맹휴학으로 무기정학을 당하였고,¹³⁾ 다시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나자 이에 참여하였다가 4학년 때인 1929년 퇴학을 당했다.¹⁴⁾ 안수길은 일제강점 아래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실천을 통해 학생의 처지에서 뜨거운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수길은 다시 1930년 일본에 건너가 교토의 료요중학(兩洋中學)에 입학하여 이듬해 1931년 졸업과 함께 도쿄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사범부 영어과에 입학했으나 집안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1932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 용정에서 소학교 교원, 간도일보·만선일보(滿鮮日報) 기사를 지내면서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소설을 썼다. 1945년 6월에 건강을 이유로 『만선일보』를 사직하고 고향 함흥으로 돌아왔다. 이후 1948년 월남하여 서라벌예대 교수, 이화여대 강사, 한양대 교수,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중앙위원, 한국문협이사를 역임하였다.

안수길은 1935년 단편 「적십자병원장」과 콩트 「붉은 목도리」 등이 『조선문단』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940년부터 단편 「사호실」(1940), 「한여름 밤」(1940), 「원각촌」(1942), 「목축기」(1943), 중편 「벼」(1940)를 발표하면서 만주의 조선인 문제를 주로 다뤘다. 즉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만주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안수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 「원각촌」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수길은 이미 1920년대 용정 및 대각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데 대각 일요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던

12) '龍井各學校卒業式', 『동아일보』 1922. 4. 8.

13) 『學生盟休에 關한 情報綴』, 京東警高秘 第1117號, '敝新學校 同盟의 件 續報', 1928. 6. 19.

14) 『思想에 關한 情報綴 第6冊』, 「京畿道學生動搖事件」, 京高秘 제4527호, '退停學生徒의 處分表에 關한 件', 1930. 6. 9.

것이다. 용성은 1928년 4월 15일부터 '대각 일요학교'를 설립하여 남녀 학생 80여 명을 가르쳤다. 당시 불교계는 일요일에 대한 관념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였다. 일요일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요학교를 조직한 것으로 불교계에서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일요학교 고문으로 백용성을 비롯하여 이인표·이만승·고봉운·최창운이었고, 교장은 이근우(李根雨), 교사 이춘성(李春城), 안수길(安壽吉) 등이었다.¹⁵⁾ 5월 6일 제1회 학예회를 개최하여 하모니카(독주), 댄스, 요술 연극 등 관중들의 갈채 속에 큰 흥행을 거두었다.

교장 이근우는 범어사 강원 출신으로 범어사 3.1운동에 참여한 주역으로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출옥 후 대각교당 간사회를 조직하여 총무로 활동하면서 용성의 역경사업을 도왔다. 용성의 역경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삼장역회 교정사로도 근무하였다.¹⁶⁾

춘성은 만해 한용운의 유일한 상좌로 만해와 용성이 함께 감옥에 수감되고 스승의 옥 바라지를 하면서부터 용성을 스승처럼 여겼다. 감옥에서 나온 뒤 용성의 화엄경 번역작업에도 동참하였다. 안수길은 당시 서울 경신학교 재학생으로 대각 일요학교 교사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각 일요학교 학생은 7~80여명에 이르고 안수길은 남성 4인, 여성 3인으로 이루어진 대각 일요학교 교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대각 일요학교는 매주 「대각」이라는 글을 발간하였는데 문학적 역량이 있는 안수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안수길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학창시절 용성의 대각교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제 소설 「원각촌」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2. 「원각촌」을 통해 본 대각교 농장

반도 불교계의 선지식으로 유명한 해룡선사가 불교의 통속화를 피하여 한문으로 된 불경을 언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종내의 절에서 행하던 예식 절차를 고쳐 민중이 친할 수 있는 순 언문의 절차를 꾸몄으며 불(佛)은 즉 깨침(覺)이라 하여 불교를 원각교라 개

15) '大覺日曜學校設立', 『불교』 48호(1928. 6), p.97.

16) 김광식, 「東僞의 생애에 대한 一孝」, 『대각사상』 22, 2014.

칭하고 서울 X동에 원각교 본부의 간판을 걸고 포교한 지 일 년, 땅값이 싼 만주 그중에도 반도인이 많이 사는 간도에 토지를 사놓고 농호를 모아 농사시키는 한편 포교도 하고 학교도 세워 그 동리를 원각교의 이상촌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그의 제자 사오인을 대동하고 들어온 것은 이년 전 겨울이었다.¹⁷⁾

소설에서 말하는 ‘해룡선사’는 ‘용성선사’임을 직감할 수 있다. 조선 불교계의 선지식으로 사찰 예식 절차를 쉽게 고치는 등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며 한문으로 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佛)’은 즉 ‘깨침(覺)’이라 하여 대각교(大覺教)라 고치고 봉익봉에 대각교 본부를 설치하고 포교에 매진한 인물은 용성선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각교’는 ‘대각교’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각교 본부의 간판을 걸고 포교한 지 1년, 간도에 토지를 사놓고 농사와 포교를 하는 대각교 이상촌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제자들과 2년 전 겨울에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우선 용성스님이 서울 봉익동 대각교 본부의 간판을 걸고 포교하기 시작한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대각교를 표방한 시점을 도문스님은 1921년 출옥 이후 삼장역회를 만들고 대각사를 봉익동 3번지 민가를 구입하여 대각사로 하고 대각사 본부를 이곳에 두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1922년 만주 연길현 명월촌과 30리 가량 떨어진 봉녕촌에 각각 700정보 가량의 농토를 구입 확보하여 농장을 마련하여 ‘선농당 화과원(禪農堂華果院)’을 설립하였다고 한다.¹⁸⁾ 소설의 시좌와 일치하는 서술이지만 시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위치와 명칭도 부정확하다.

두 번째로 대각교의 시작을 1922년 4월 8일로 본다면,¹⁹⁾ 간도에 토지를 사서 농호를 모아 농사와 포교 및 학교 교육을 하고자 한 것은 이듬해인 1923년이라 추정할 수 있다. 용성은 만주 가운데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간도에 토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 포교도 하고 학교도 세워 대각교의 이상촌을 만드는 계획을 1923년 시작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17) 안수길, 「원각촌」,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안수길』, 보고서, 2006, p.84.

18) 불심도문, 『3대 대사연보(三代大師年譜)』, 죽림정사, 2007, pp.216~217.

19)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 p.184.

그런데 문제는 제자 4~5인을 데리고 2년 전 겨울에 간도로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각교 본부 간판을 건 시점을 1927년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파악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에 1928년에 간도에 이상촌을 만들려고 제자 4~5인을 데리고 2년 전 겨울, 즉 1926년 겨울 간도로 들어왔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大覺께서 吾人の 農商을 禁하였으나 現今에는 도저히 乞食할 수 없게 되었다. 아- 우리는 팽이 들고 호미를 가지고 힘써 勞農하여 自作自給하고 他人을 依賴하지 말자. 余는 此를 覺悟한지가 二十年前이나 勢不得已하지 못하다가 五六年 前에 中 國 吉 林 省 甯 安 縣 龍 山 洞 에 數千日 耕 土地를 買收하여 吾敎人으로 自作自給케 하였으며, 또 果農을 從事하여 五六年間을 勞力中이다.²⁰⁾

이미 용성이 스스로 언급한 바처럼 5~6년 전인 1926~27년 즈음에 용성남자 용산동에 수천일경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방식이 타당해 보인다.

이곳저곳 땅을 물색한 결과 이곳 토지 육백상(六百垧=一垧은 2천평)을 한익상이를 내세워 사기로 하였다. 이곳은 연길현 송예향 운출라즈 청산동(延吉縣 崇禮鄉 甯安磧子 靑山洞) 윤모와 소모(邵某)의 소유 토지였다. 운출라즈에서 삼십리 조고만 냇물을 연하여 북으로 넓은 들을 자서 올라가면 항구와 같이 동서북방이 산으로 뱅 둘러싸인 곳에 자리 잡은 동리였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였기에 겨울에 바람막이가 좋았고 오십 여 상 산림에는 이갈나무의 고목이 자옥이 들어 있어 큰 집 기둥감은 물론 겨울 화목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현지에 사는 조선인을 내세워 그 사람 이름으로 토지 육백상(六百垧)을 구입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기존의 논의에서 1상(垧)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안수길은 1상(垧)을 2천 평으로 분명히 쓰고 있다. 이를 계산해 보면 구입한 토지가 600상, 즉 120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0) 백용성, '中央行政에 對한 希望', 『佛敎中央行政에 對한 不滿과 希望』, 『佛敎』 93(1932. 3), p.15.

위치는 ‘연길현 송례향 운출라즈 청산동(延吉縣 崇禮鄉 甕聲砬子 靑山洞)’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기존의 윤모와 소모(邵某)의 소유 토지를 구입한 것임을 보여준다. 운출라즈 청산동(靑山洞)은 운출라즈 ‘용산동(龍山洞)’의 소설적 변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

원래 운출라즈, 즉 ‘옹성납자(瓮声砬子)’는 도로 중심에 돌출한 돌산으로 하여 그 독특한 땅 이름을 얻었다. 원래 발해국 시절 노주(盧州)였고, 청나라 때는 봉금지대로 사람이 살지 않다가 1881년 봉금이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송례사(崇禮社)를 거쳐 송례향(崇禮鄉)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옹성납자, 또는 명월구(明月溝)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독립운동사상 중요한 곳으로 동북인민혁명군 및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무대였기 때문이다. 1934년 延吉縣 崇禮鄉 明月溝 九龍坪에서 2명의 독립군이 검거되기도 하였다.²¹⁾ 또한 악명을 떨친 일제의 간도특설대(間島特設隊)가 1939년 부설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연길현(延吉縣)은 안도현(安圖縣)으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는 길림성 안도현 명월진(明月鎮)으로 안도현 인민정부 소재지이자 안도현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명월진 정부는 명월구(明月沟)에 위치하고 성동촌, 용산촌, 명동촌, 신안촌, 화흥촌, 명안촌 등 45개 행정촌을 관할하고 있다.

소설은 원각촌, 즉 대각교 농장이 운출라즈에서 북으로 30리 지점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는 점이다. 『중외일보』의 ‘운출나자(雲出砬子)’의 표기 방식은 운출라즈의 음역에서 오는 오류로 볼 수 있다. 현재 명월진에서 서북쪽으로 302국도상 용산촌(龍山村)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용산동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평지 오백여 상 토지에는 기경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조금만 힘들이면 높은 곳은 밭, 낮은 곳은 냇물을 이용하여 논도 백여 상 풀 수 있었다. 농호는 백여 호는 넉넉히 입식할 수 있었으며 그 백여 호가 법당과 학교를 중심으로 모다 남향작의 집을 짓고 앉게 되면 그 골 전체가 한 가족 한 덩어리가 되어 여기에 원각교 이상의 촌락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여름이면 농사, 겨울이면 숲도 구울 수 있고 산 옆 초원을 이용하면 목축도 할 수 있었다. 해룡선사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이곳을 사서 원각촌이라 촌 일흠까지 고치기로 하였다.

21) ‘管内鮮人ノ匪害及保護ニ關スル狀況其他送付ノ件’, 1934. 6. 15.

120만평의 구입 토지 가운데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지가 50여 상, 10만평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평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입 토지에서 평지는 500여 상, 즉 100만평에 달하는데 당시 논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렇지만 높은 곳은 밭으로 개간하고 낮은 곳은 냇물을 이용하여 논으로 쓸 수 있는 땅은 100여 상, 즉 20만평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곳에 100호 정도 꾸러 법당과 학교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집을 짓고 대각교에 기초한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더욱이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숲을 만들어 팔 수 있으며, 산 옆의 초원에서 목축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각교 농장의 꿈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당시 민국(民國)에 입적치 않은 사람은 토지를 살 수 없었다. 토지를 살려면 적을 가진 사람을 앞장세워 그 사람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익상이는 부조시대(父祖時代)에 만주에 들어온 사람으로 이곳 태생이었다. 적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산동에서 오래동안 살았으므로 그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곳 물정을 모르는 그들, 더욱이 중이라는 것을 기화로 당시 가격으로 이만 원 될가 말가하는 토지를 삼만 원이란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시켰고 집조(執照=토지문권)의 명의로 즉 홋주인이 되어 그 토지에 대한 반분의 소유권을 차지하였다. 해룡선사는 홋주인의 제도는 이미 각오하였으나 이만 원 가치의 토지를 삼만 원에 산 것은 몰랐다. 그것을 알아낸 것은 토지 관리인 겸 원각사 주지로 그후 그곳에 남아 있는 화담 법사였으나 그것을 안 때는 벌써 시기가 늦었다.

당시 민국(民國)에 입적치 않은 사람은 토지를 살 수 없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토지문건의 매매계약자라는 명분으로 토지 소유의 권리를 반분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토지거래 가격을 2만원이면 될 것을 3만원에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것도 시간이 오래된 뒤의 일이라는 것이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승려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의 존재는 대각교 농장(선농당)의 운영에 커다란 암적 존재였다.

同年四月八日に奉佛開教式を舉行し白相奎氏は施主高鳳雲崔昌雲兩女史より喜捨金一萬餘圓を得て明月溝と太平洞に土地を買収して龍井大覺教に寄附したもので…22)

즉 백용성은 고봉운·최창운 여사로부터 ‘희사금 1만원’을 얻어 명월구와 태평동에 토지를 매입하여 용정 대각교에 기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지금으로부터 十二年전에 경성에 있는 백상규, 고봉운, 최창운(白相奎, 高峰雲, 崔昌雲) 셋이 三萬三千圓의 대금으로 명월구 급 용정에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용정 대각교회를 창설하고…23)

백용성 스님이 ‘3만 3천원’의 거금으로 명월구와 용정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봉운·최창운의 1만원과 용성스님의 원력으로 기부금을 더 모아 3만3천원의 거금을 마련하여 용정의 대각교 교당은 용정시 태평동에, 대각교 농장(선농당)은 명월구 용산동에 토지와 건물을 마련한 것으로 봐야한다. 현재 용정시 동성용진(東盛涌鎭) 태평촌(太平村)이 존재하고 있다. 용정시와 동성용진의 중간 지점으로 볼 수 있다.

間島の 延吉 明月村 寧鳳村에 七十餘 畝의 田地를 買得하고 教堂을 設立하여 僧侶의 半農半禪 生活의 嚆矢를 作한지 別서 十五年이라 하니…24)

대각교 농장을 ‘명월촌(明月村) 영봉촌(寧鳳村)에 70여 상(畝)의 토지를 구입하여 교당을 설립하였다’는 언설은 운허 스님의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²⁵⁾

22) ‘龍井大覺教に對し京城本府から解散命令’, 『間島新報』 1938. 4. 12; 김석주, 「연변지역 불교의 발전과 대각교회 연구」, 『대각사상』 16, 2011, p.123(재인용).

23) ‘龍井大覺教會에 突然解散通告’, 『동아일보』 1938. 4. 3.

24) 龍夏, 「禪農觀」, 東山慧日編, 『龍城禪師語錄』 下, 三藏譯會, 1941; 김광식, 「백용성스님의 선농불교」, 『대각사상』 16, p.74(재인용).

25) 김석주는 영봉촌(寧鳳村)을 봉녕촌(鳳寧村)의 오키로 보고, 명월진 서북쪽으로 13킬로 떨어진 양병진(亮兵鎭)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선농당의 위치를 安圖縣 明月鎭 龍山村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그럼에도 구입한 토지가 70여 상(晌), 즉 14만평이라 한 것은 아마도 훗주인인 토지거래자(한익상)와 대각교농장의 소유권이 반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 구입토지 가운데 실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규모가 70여 상, 즉 14만평 규모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명월촌과 영봉촌을 각각 다른 마을로 보지 않고 명월구 영봉촌으로 파악한다면 명월구 봉녕촌 용산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 당사자인 백용성의 언급은 ‘吉林省 瓮聲磳子 龍山洞’이라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경지는 이십 상밖에 안 되었으나 그것은 전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그대로 부치되 ‘싼치’(三七=지주 3, 작인 7)로 하고 재이주민은 개간에만 주력하였다. 이곳 저곳에서 농호는 춘삼이가 희망에 가슴 뛰이든 후한 조건에 연줄연줄 모아들었다.

첫해에 이십 호 다음해에 열 호였다. 기주의 십여 호까지 합하면 역쇠가 들어왔을 무렵 원각촌에는 사십여 호가 개척의 광이를 내려놓고 있었다.

120만평의 구입 토지 가운데 오래전부터 논밭으로 경작하던 기경지는 20상, 즉 4만평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지주 소작관행이 병작반수로 소작인에게 지극히 불리한 제도였던 것에 비해 지주 3, 소작인 7의 3.7제는 만주 이주를 촉진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해방 후 남한 농민들의 소작투쟁에서 주요 구호 가운데 하나가 ‘3.7제’의 쟁취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첫해에 20호, 다음해에 10호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기존에 살던 원주민 10여 호까지 합쳐 40여 호가 대각교 이상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당과 학교는 아직 따로 크게 짓지 않았다. 전 주인 소씨의 집이 넓은 것을 이용하여 학교로 썼고 법당은 북쪽 산 등에 동리를 한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지어놓은 법사의 집 두 방을 툇 테여 뒷목에 부처님을 모시였다. 위선 그 호수에 그것이면 족하였다. 선생은 물론 화담 법사였다. 아침이면 법당에서 종소리가 났다. 모두 법당에 모히였다. 아침 예불을

석주, 「연변지역 불교의 발전과 대각교회 연구」, 『대각사상』 16, 2011, pp.126~128.

끝마치고 산으로 들로 일하러 나갔다. 저녁이면 또 쇠소리가 나나 이때에는 대개 어린이들이 뭉였다. 뭉여서는 주력을 외이고 스님의 재미있는 이악이를 들었다.

2년이 지나도 법당과 학교는 별도로 짓고 않고 있었다. 전 주인 소씨 주택을 학교로 사용하고, 법당은 법사가 사는 집의 방 두 개를 터서 윗목에 아미타불을 모셨다는 점이다. 벽에는 용을 타고 구름 위에 서있는 관세음보살상을 그림으로 붙여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사십 여 호의 농호로는 넓은 토지를 속히 개간해 낼 수도 없거니와 그것으로 원각촌의 이상은 충분히 실현할 수 없었다. 역쇠가 오든 해 설을 쇠고는 봄에 경상도에서 농호 오십여 호를 입식시키기로 준비가 다 되었다.

오십 호의 새 식구가 들어오기 전에 법당도 큰 것으로 짓고 학교도 새로 세우기로 하였고 그들이 와서 세울 집 재료도 이 겨울 안에 베여놓아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허전한 느낌을 일으키게 말자고 법당 스님은 기운을 내었다.

다른 곳 만주인 지팡사리에 가진 고초를 겪었던 주민들은 동포의 지주요 종교의 이상촌을 만들려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주다. 모든 것이 푸근하다 하며 이곳에 마음을 부치었다. 더욱이 학교가 있고 교당이 있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 세상 만난 듯 기쁘게 배우고 뛰놀았고 어른들은 특히 부인들은 법당에 들나들어 부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지금까지 만주들에서 갈팡질팡 갈 바를 몰랐던 마음의 귀의처를 찾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고 화담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와 힘을 합하여 원 동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 원각교 이상촌 건설의 희망에 불타고 있었다. 아늑한 생활이요, 평화한 동리였다.

지팡사리(만주인 농장의 소작생활)하는 농촌이 당시 전 간도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국경을 넘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빈궁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처지의 소작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소작료는 3할, 4할에서 점차 지주가 6할을 갖는 4.6제까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²⁶⁾ 같은 민족이 지주이면서 종교의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선농당의 소작인들이 갖는 정서적 안정과 현실적 이익에 더하여 학교 교육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제안

26) '閔島農村, 우리同胞의 慘愴한 情境', 『동아일보』 1923. 12. 31.

으로 대각교 농장(선농당)으로 이끌었다. 첫째 이곳을 개간하고 5년 간 농토에서 나는 소출은 그대로 먹으라는 호조조건이었다. 둘째, 사는 집은 대각사 소유 산림에서 맘대로 베어 짓도록 하고, 그 외의 각 호마다 재료비로 50원을 지급한다. 셋째, 3호를 열어서 한 필씩 소까지 지급한다는 후한 조건이었다.²⁷⁾

개간 뒤 5년간 소작료 면제, 집 짓는 재목 및 재료비 50원 제공, 3호 당 소 1필 제공 등의 호조조건에 더하여 다른 지팡사리와 달리 3.7제 소작료를 통하여 만주의 가난한 동포들을 구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다 깊은 역사적 의의를 논구해볼 일이다.

한편 대각교 농장의 사람들은 집짓고 불을 질러 받을 일구고, 수도 파서 논을 풀고, 산에 가서 목재를 베어오고 그것을 재목으로 다루어 법당과 학교 건물을 짓는데 열심이고 정성이었다. 한 호 두 호 인근 지팡에서 모여들어 식구가 나날이 불어갔다. 봄이면 들어올 50호 식구를 기쁨으로 기다렸다. 3년차 되는 해에 경상도에서 50호가 대거 이주해 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수가 지나 법당 재목, 학교 재목, 50호의 새 주민들의 집재목들도 다 마련하였다. 우선 법당부터 세우기로 하였다. 입주하는 농민들이 크게 늘면서 학교와 법당을 새로 크게 짓게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용정 대각교 교당 봉불식은 1927년 4월 8일에 거행하고 있다.²⁸⁾ 『大覺教題稱理由書』에서 용성이 밝힌 바처럼 임술년(1922) 여름 4월 8일에 대각교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불교계 내부의 찬반이 분분하여 고심하였는데 우연히 석시경(釋時經) 선사와 서로 뜻이 합치되어 정묘년(1927)년 봄에 연변지방에 같이 들어가서 대각교당을 건립하고 민중 대각화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²⁹⁾ 따라서 1927년 2월에 시작한 용정의 대각교당은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8일을 맞아 봉불개교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는 용정의 대각교당 봉불식이 9월 11일 성황을 이루며 개최한다는 점이다.³⁰⁾

27) 안수길, 위의 책, p.78.

28) 한보광, 「백용성 스님과 연변 대각교당에 대한 연구」,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김석주, 「연변지역 불교의 발전과 대각교회 연구」,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29)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 1935; 마성, 「백용성의 선농불교에 대한 재조명」, 『대각사상』 23, 2015, pp.83~84(재인용).

30) ‘大覺教堂奉佛式’, 『佛敎』 40(1927. 10), p.52.

이에 대한 해석은 대각교 농장을 명월구 용산동에 구입하고, 다시 용정 태평동에 토지를 구입한 뒤 법당을 크게 신축하는 불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할 듯하다. 4월 봉불식 이후 몇 달 뒤인 9월에 법당을 신축하고 성대하게 봉불식을 거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³¹⁾ 즉 소설 「원각촌」에서 그리고 있듯이 법사가 거주하는 집의 두 방을 터서 불상을 모신 뒤, 다시 새롭게 재목을 구해 법당과 학교를 제대로 신축하기까지 약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각교 농장에는 학생회와 신도회가 구성이 되어 활동을 하였고, 주요 설교사로는 안보광(安寶光)과 정시경(鄭時經)이었다.³²⁾

1927년 2월 백용성은 시주자 고봉운(高鳳雲)·최창운(崔昌雲) 여사로부터 ‘회사금 1만원’을 얻어 명월구(明月溝)와 태평동(太平洞)에 토지를 매입하여 용정 대각교에 기부하였고, 백용성·고봉운·최창운 3인과 신도 대표자 사이에 토지와 산림 및 가옥을 기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성 스님은 서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토지와 산림 및 가옥을 구입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제자 사오인을 대동하고 들어온 것은 이년 전 겨울’이라는 소설의 언급은 이미 1925~1926년 겨울에 용성 스님이 4~5인 제자와 더불어 용정에 들어와 산림과 토지 등을 구입하는 일들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1927년 4월 8일 봉불개교식을 거행한 것이라 하겠다. 용성은 시주자 고봉운과 최창운 두 여사의 회사금과 용성스님의 노력으로 ‘3만3천원’의 자금으로 명월구 용산촌과 용정 태평동에 산림과 토지를 매수하여 대각교 농장과 용정 대각교당을 설치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대각교당’이나 ‘대각교 농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선농당(禪農堂)’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1) 한태식(보광),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2)」, 『대각사상』 4, 2001, p.16.

32) 김석주, 「연변지역 불교의 발전과 대각교회 연구」, 『대각사상』 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pp.122~123.

용성스님이 입적하신 뒤, **북간도 대각교 농장**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 1년간의 북간도 생활을 끝내고, 금강산으로 돌아온 나는 유점사에서 꿈에 그리던 조국 해방을 맞았다.³³⁾

화과원과 관련한 김달진의 경우에도 ‘북간도 대각농장’이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용례로 보아 ‘선농당’은 선농일치 사상에 근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용정의 대각교당’과 ‘명월진의 대각교 농장’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선농당이라 부르는 것은 이 둘의 내용과 성격을 불분명하게 하거나 또는 단순화하는 오류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각교 농장을 선농당으로 부르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용례라 할 수 있지만 용정의 대각교당을 선농당으로 부르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용성의 만주의 대각교 농장의 경영은 단순히 스님들이 농사짓고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유랑하던 동포들이 대각교회를 통해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대각교 농장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자 독립운동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정 대각교당과 용성납자(명월구) 용산동의 대각교 농장은 용성의 또 다른 독립의지와 불교개혁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각교 농장’이라는 용어가 용성 스님의 원대한 꿈을 보다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함양 화과원의 의미를 찾아서

대각교 농장을 통해 용성은 또 다른 독립의지와 불교개혁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국내로 연장한 것이 함양 화과원(華果院) 경영이라 할 수 있다. 화과원의 운영을 알려주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개략적이거나 백용성의 선농불교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⁴⁾

33) 김달진, 「나의 인생, 나의 불교」, 『불교사상』(1984. 6), 『썬냉이꽃(외)』, 범우, 2007, p.709.

34) 龍夏, 「禪農觀」, 東山慧日編, 『龍城禪師語錄』下, 三藏譯會, 1941; 김광식, 「백용성스님의 선농불

화과원(華果院)은 화엄경과 화엄사상과 관련한 용어로 용성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성스님과 인연과 깊은 김달진(金達鎭, 1907~1989)의 화과원과 관련한 기술이 있어 주목된다. 아마도 화과원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3.1 독립선언 33인의 한 분인 용성스님이 화과원(華果院)이라 이름한 것은 깊은 불교적 뜻이 있었다. 불화엄(佛華嚴)이란 말이 있다. 이에 앞서 대방광(大方廣)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열가지 의문(義問)이 있는바 요는 일심법계(一心法界)와 체용(體用)법계가 광대무변하다는 뜻에서 대방광이라 이름한 것이고 불화엄의 불(佛)은 대방광의 무진(無盡)법계 이치를 증명하신 화엄경의 교주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만덕(萬德)의 과체(果體)를 성취한 인행(因行)을 꽃에 비유하면서 인위(因位)의 만행(萬行)을 고루 갖춘 불과(佛果)가 장엄(莊嚴)하다는 의미에서 불엄이라 일컫는 것이다.

“화(華)는 보살의 만행(萬行)을 꽃에 비유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작용이 있음을 뜻한다”는 글이 있다. 이것은 감과(感果)의 능력이 있는 행(行)이 안과 밖이 돌이면서 돌이 아닌 이치를 밝힌 것이며 아울러 법(法)으로서 사(事)에 의탁하는 것이므로 화(華)라 하는 것이다.

화(華)를 인행(因行)과 비유한 것은 참으로 광대무변의 깊은 진리가 있다 할 것이다. 꽃에는 피어나기 시작하는 화(華), 화(華)와 열매(實)까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생과(生果)의 화(華), 그리고 화실(華實)의 때인 장과(莊果)의 화(華)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용성 스님이 화과원이라 이름 하여 백운산에 선농을 병행하는 항일 불교단체인 대각교를 창시하고 경제적 자립상태에서 장과(莊果)=화과(華果)의 참뜻인 인과상즉무애(因果相即無碍)를 몸소 후진들에게 교시하신 것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³⁵⁾

김달진은 경남 창원의 계광보통학교를 1920년에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 중앙고보를 다니다 신병으로 중퇴하였다. 고향에서 휴양 후 다시 경신학교에 진학하였는데, 4학년 때

교], 『대각사상』 2, 1999; 김광식,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불교평론』 25, 2005년 겨울호; 김광식, 『백학명의 선농불교』, 『鶴鳴集』, 성보문화재연구원, 2006; 김순석, 『白鶴鳴의 禪農一致와 근대 불교개혁론』, 『韓國禪學』 23, 한국선학회, 2009; 김호성, 『근대 한국의 선농불교에 대한 재조명 - 鶴鳴과 龍城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5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이수창(마성), 『白龍城의 禪農佛敎에 대한 再照明 - 교단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3, 2015.

35) 김달진, 『나의 인생, 나의 불교』, 『불교사상』(1984. 6), 『썬냉이꽃(외)』, 범우, 2007, pp.704~715.

일본인 영어교사 배척운동을 주동한 이유로 퇴학당하였다. 이후 모교인 계광학교에서 7년간 교편을 잡았다. 1933년 늦가을 고향을 떠나 1934년 4월 초파일 유점사에서 김운악 주지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결혼까지 한 27세의 늦은 나이였다. 유점사에서 변설호 스님에게 능엄경을 배웠고 이듬해인 1935년 용성스님이 창립한 ‘항일 불교단체인 대각교가 운영하는 화과원(華果院, 함양 백운산)’에서 반선반농(半禪半農)의 수도생활을 하면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華嚴經)』의 운문한 바 있다고 술회하고 있다. 스스로 대각교를 항일불교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달진은 용성을 가까운 거리에서 뵈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김달진의 삶에서 용성과 화과원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김달진은 화과원에 있으면서도 『동아일보』에 ‘화과원시’를 투고하거나,³⁶⁾ 승려 생활에서 느낌을 담담히 풀어쓴 수필인 ‘독경의 틈틈이’이라는 동아일보 연재글의 두 번째 순서에서 “진리에서 순응하는 바 일은 성공과 실패를 초월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진실한 의미의 활동의 가치와 성취가 있을 뿐입니다.”라는 글을 맺으며 ‘화과원에서’라고 집필 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⁷⁾

또한 1935년 고향을 찾아 그 다음날 아내의 임종을 지킨 뒤 다시 화과원에 돌아온 김달진은 유점사의 김운악 스님으로부터 공비생으로 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하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때에도 용성스님의 허락을 쾌히 받고 불전에 1936년 4월 입학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서정주·김어수 등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서정주·김동리·오장환 등과 시인부락동인이 되었으며 그 창간호(1936. 11)에 ‘황혼’ 등을 게재하였다. 김달진은 3년간의 전문학교를 마치고 유점사로 돌아가 법무(法務)로 있으면서 70여 사찰의 본사, 말사를 4년간 두루 다니면서 강론을 했다. 이 강론 때문인지 왜경의 요시찰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는 1941년 만주 북간도(北間島)에 있는 용성 스님이 세운 대각교 농장을 찾기도 하였다. 북간도 용정에서는 『씩』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던 소설가 안수길(安壽吉)을 만나 시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때의 작품으로 용정·뜰·향수 등 5편이 있다. 김달진은 용성스님

36) ‘화과원시’, 『동아일보』 1935. 1. 20.

37) ‘독경의 틈틈이’, 『동아일보』 1935. 3. 24.

이 입적하신 뒤인 1941년 북간도 대각교 농장을 찾았다. 대각교 농장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1년간의 북간도 생활을 끝내고 금강산으로 되돌아왔다고, 유점사에서 꿈에 그리던 조국 해방을 맞았다는 것이다.³⁸⁾

김달진의 주요한 삶의 고비마다 화과원과 간도 대각교 농장 등 용성의 짙은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셈이다. 김달진이 대각교 농장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특별한 언급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아쉽다.

백범 김구 일행이 대각사를 방문했을 때 이들을 맞이했던 용성스님의 제자는 동암 성수(東庵性洙, 1904~1969) 스님이다. 동암 스님은 스승인 용성스님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와 상궁들 사이를 연락하며 자금과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용성 조사를 시봉하며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금강산 장안사(長安寺)에서 진허율사(震虛律師)에게 비구계를 수지한 후에는 약 10년간 상해, 북간도, 일본을 오가며 수행과 독립운동을 병행한다. 해방이 되고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을 환영하는 임시정부 봉영회를 구성하는 등 민족의식도 강했다는 것이다.³⁹⁾

동암 선사 비문에 따르면 “1925년 이후 10년간은 한때 금강산 장안사에서 진허율사에게 비구계를 수지한 것 외에는 줄곧 조국의 독립운동으로 상해, 북간도, 일본 등지에서 젊은 우국 심혈(憂國心血)을 경주하셨음은 특이할 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⁴⁰⁾

북간도 지역은 동암 선사의 고향과 멀지 않은 곳이어서 지리에 밝은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 시기에 용성 조사는 만주(북간도)에 대규모 대각교당(大覺教堂)을 지어 독립군을 지원하고, 자금을 보내는 등 활동을 하는데, 이 때 동암 선사가 일정 역할을 담당했다. 흥교 스님은 “용성 조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동암스님이 심부름을 많이 했다.”면서

38) 김달진, 위의 책, p.709.

39) 이성수, 「동암선사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 2014, p.13.

40) 이성수, 위의 글, p.20.

“돈을 숨긴 쌀가마니를 기차 편으로 만주에 보낼 때 동암 스님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회고했다.⁴¹⁾

동시에 동암스님이 ‘임시정부 환국 봉영회장’이었다는 구술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앞에서 보았듯이 전국단위에서 1946년 11월 ‘임시정부 영수 환국 전국환영회(위원장 金錫璜)’ 구성에 불교계 인사로 영접부의 김법린(金法麟), 서무부의 김적음(金寂音)·이종욱(李鍾郁)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동암스님은 전국적 단위가 아니라 대각사 차원에서 진행된 임정 환국 봉영회장이었을 가능성은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암 스님은 속명 박승수(朴承洙)라는 이름으로 1947년 5월 결성된 조선불교총본원(朝鮮佛教總本院)의 협력 기관이었던 전국불교도총연맹의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⁴²⁾ 정두석(鄭斗石), 홍도일(洪道一) 등과 더불어 3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이었다. 좀 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용성의 또 다른 제자인 봉암 월주(鳳庵月周, 1909~1975)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³⁾ 전라도 광주에서 항일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렀던 변순기의 아들이기도 하다. 변순기는 백용성과 각별한 사이로 본명이 변진설(邊鎭契)이었던 아들이 백용성의 제자가 된 것도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다. 1938년 1월 백운산 ‘화과원(華果院)’에서 동안거를 했다는 증거를 조선불교선교총림 종주 백용성의 이름으로 발급받고 있다. 또한 1941년 1월 ‘화과원 선원(華果院禪院)’에서 원주(院主) 소임을 보면서 동안거 성취, 1942년 7월 ‘화과선원(華果禪院)’에서 하안거 성취를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 이름으로 발급받았다.⁴⁴⁾

화과원, 화과원 선원, 화과선원 등 명칭의 미묘한 변화는 화과원의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불심도문 스님의 증언은 전남 광주의 지사 변순기(邊舜基, 1884~1971)와 각별한 사이여서 그의 아들 봉암 변월주가 용성 스님을 의지하여 출가하였고 간도 대각교 농장과 화

41) 이성수, 위의 글, p.22.

42) ‘전국불교도총연맹 결정’, 『民主衆報』 1947. 6. 1.

43) 『대각사상』 26(2016)은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44)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대각사상』 26, 2016.

과원 원주로 1939년부터 1941년 5월까지 3년간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약하였다는 것이다.⁴⁵⁾

변순기는 3.1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199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이에 따른 공적조서는 다음과 같다.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군 광산면에서 김복현(金福鉉) 등 1,0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가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4월을 받아 복역하였으며 1921년부터는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의 문인으로서 1921년 이래 학자로 활동하고 1927년 12월 신간회 장성지회(長城支會)가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고 수세불납(水稅不納) 운동과 문맹퇴치(文盲退治) 운동을 전개하는 등 3년 5월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광주에서 함평여관(咸平旅館)을 운영하였던 변순기는 변호사 서정희(徐廷禧) 등과 1919년 3월 광주의 만세시위를 주도했다.⁴⁶⁾ 이에 관련자 80명과 피체되어 법원에서 4개월형을 받았다.⁴⁷⁾

봉암 변월주(변진설, 1898~1981)는 1938년까지 함양 화과원 원주(관리장)로 재직하면서 독립자금을 마련해 임시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변진설(변봉암)도 일제강점기 학생운동의 경력을 인정받아 2006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적조서는 다음과 같다.

192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학우 이경채(李景采)의 퇴학처분에 항거하여 복교(復校) 및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를 주장하며 맹휴운동(盟休運動)을 주도하다 퇴학처분을 받자 7월에는 맹휴중앙본부(盟休中央本部)를 조직하고 맹휴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격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1928년 8월 23일 체포되어,⁴⁸⁾ 1928년 11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을 때까지 3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45) 이수창(마성), 『백용성의 선농불교에 대한 재조명』, 『대각사상』 23, 2015, p.87.

46) 전독립기념관장 崔昌圭 찬, 『愛國志士耕史邊舜基先生紀績碑銘并序』, 1998. (전북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소재)

47) 『每日申報』 1919. 4. 17; 5. 4

48) 『長城署出動 光高生檢擧』, 『동아일보』 1928. 8. 26.

변진설은 이로써 아버지 변순기와 더불어 부자가 모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사례가 되었다. 물론 변봉암(변진설)의 독립유공자 포상의 내용은 1928년 광주교보 동맹휴학을 주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만주 대각교 농장과 함양 화과원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백용성은 1927~8년 무렵 함양군 백운산의 산림, 황무지 등 수만 평을 매입하였다. 매입한 땅을 개간하고 과수, 야채, 감자 등을 재배하여 자급자족의 정신으로 일을 하였다. 반농반선의 농장이자 수도처이면서 동시에 인근 촌락의 빈민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장의 역할을 하였다. 이는 자급자족의 농장이자 승려들의 수도장, 지역아동의 교육장이자 자신의 휴식처이자 여생을 보낼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동시에 생산과 소비조합을 통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 교당을 만들어 순회 포교사를 배치하여 소작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새로운 종교를 기반한 농촌계몽 운동의 공간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사원 산림제도를 개선하여 유실수를 심고 가꾸어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자 하였다.

1940년 경 화과원이 있었던 함양의 대각교 재산은 규모면에서 그리 작은 것이 아니었다. 논 1만9천140평, 밭 6만9천340평, 대지 660평, 잡종지 380평, 임야 136정보(40만평)의 규모였다.⁴⁹⁾ 전체적으로 49만평으로 그리 작지도 크지도 않은 규모였다. 이것은 백용성과 신도인 고봉운, 서대길, 김순명 등의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라 한다.

화과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전후 사정에 대한 확인여부가 문제이다. 백범 김구 일행 30여명이 1945년 12월 12일, 국내로 귀국하여 대각사를 찾았는데, 그날 30세였던 김흥업(법왕심) 보살은 김구 선생이 “용성스님은 이미 열반해 아쉽지만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우리 동지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전한다.⁵⁰⁾

49)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선리참구원 제6회 정기 평의원회, 서무부 경과보고 자료』(1940.3); 김광식, 『華果院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 -이선파와 변봉암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26, 2016. p.126.

50) ‘임시정부 요인 대각사 감사 인사차 방문’, 『불교신문』 1998. 3. 10.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은 대각사를 방문해 용성 진종조사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성 큰스님께서 계속 보내주신 독립운동 자금으로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라는 귀국 인사말을 했다는 증언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손수건에 눈물을 쏟으시며 용성 스님이 일제의 원흉들을 처단하기 위해 매봉 윤봉길 의사를 중국에 파견하신 일과 비밀리에 독립운동 군자금을 임정에 보내온 사실 등을 털어놓으셨다고 진전되었다.⁵¹⁾

화과원에서 조성된 재원이 군산항을 통하여 임정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는 사실은 용성 문도의 증언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정토회 홈페이지에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선농당과 화과원은 독립자금을 조성하고 애국지사들과 그의 가족을 지원하는 독립운동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수탈해가자 화과원에서는 민중의 양식 대용으로 유실수와 야채를 심게 되었는데 일제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용성조사는 농장의 수확물은 물론 용유대라는 도유지에서 막사밭까지 만들어 일본사람한테 내다 판 수익금을 모아 만주 복간도 연변 용정 대각교당에 운반하여 각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 항일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화과원은 백운산 8부 능선에 있는 농장으로 1만3709㎡의 규모이며 수만 그루의 과수를 심어 승려들이 참선하면서 일하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불교운동을 펼친 곳이다. 밤나무, 배나무 등을 심고 도자기를 구워 팔아 중국 상해와 용정 등지로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농장은 화과원이 유일한 것으로 표방되고 있다.⁵²⁾ 언론이 용성문도들의 증언을 앞세워 여론을 이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각교 농장과 화과원과 관련한 승려들의 독립운동 내용은 구술을 통해 전해져오는 것으로 대부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51) ‘광복절 특집-1945년 8월15일의 기억 -도문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문화일보』 2007. 8. 14.

52) ‘독립운동 전진기지, 화과원 복원’, 『경남여성신문』 2007. 6. 7; ‘함양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 『경남신문』, 2015. 5. 19; ‘독립운동 자금줄, 함양 화과원’, 『중앙일보』 2015. 8. 15; ‘독립자금지원한 함양 ‘화과원’ 사적지 지정 급물살’, 『함양신문』, 2015. 5. 19; ‘독립운동자금 지원농장 ‘화과원’ 사적지 지정 본격화’, 『함양신문』 2016. 6. 24.

문제는 화과원의 과수 규모와 생산량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증빙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화과원이 선원 또는 수도처로서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며, 지역주민과 연계 방식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만주 용정의 대각교 농장과 화과원의 연계 내용과 운영의 방식의 차이를 밝히는 작업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확실한 근거자료의 부재를 어찌할 것인가?

불교계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은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한 이종욱과 신상완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임시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민족대표 33인으로 감옥에 갇힌 만해와 용성스님은 불교계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만해와 용성스님이 감옥에서 출옥한 이후 일제와 비타협적인 삶을 살면서 불교발전에 노력하고 있었다. 용성스님은 1921년 3월 서대문 감옥에서 출옥 이후 삼장역회(三藏譯會)를 만들고, 대각교를 창립하는 등 대중불교운동에 나섰다. 이후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성 스님이 임시정부와 연결고리를 전적으로 무시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통도사 주지 김구하 스님은 1919~1920년 사이 상해 임시정부의 안창호 국무총리(5000원), 혁신공보 백초원(2,000원), 이종욱에게 군자금(3,000원), 등 1만3천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⁵³⁾ 또한 용주사 주지 강대련의 경우 친일승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신상완의 스승으로 상해로 가는 신상완에게 여비를 지급하거나 후손들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여운형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본산 주지들이 일정한 경제적 재량권이 있는 상황에서 상호보험적인 측면에서 독립자금의 지원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지속성과 견결함에 있다.

따라서 대각교 농장과 화과원의 운영과 존재 의미를 독립운동 자금의 지원이라는 측면으로만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실제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지속성

53)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대각사상연구원, 2011.

과 규모와 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성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백용성의 삶 자체가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이다.

화과원은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이기 이전에 불교개혁을 위한 거대한 실험의 장소였다. 그 거대한 실험에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자유와 더 나아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염원을 담은 노력이 함께 했던 것이다. 대각교 농장과 화과원의 꿈과 땀, 그 꿈은 크고 깊고 넓어서 앞으로 한국불교의 또 다른 거대한 미래를 찾는 숨은 보배라 할 수 있다. 그 땀의 결정은 가야할 미래의 희망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